

#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 Some Trends of LIS Research in Korea

오세훈, 광운대학교 도서관, atom@kw.ac.kr  
이두영,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leety0521@hanmail.net

Se-Hoon Oh, Kwangwoon Univ. Library  
Too-Young Lee, Dept. of LIS Chung Ang Univ.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및 그곳에 인용된 문헌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포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연구 동향을 밝힌 것이며, 그 조사 대상 문헌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298편 및 여기에 인용된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 5,701편이다.

### 1. 서론

학문이 독자적인 연구 영역과 이론을 형성하여 발전하면서 일정 기간까지 수행된 학술 활동의 결과를 조사, 분석하고, 그 지배적인 관점과 접근 방법은 무엇이고, 당면한 쟁점과 과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구해야 할 연구 방향의 모색 등 해당 분야의 학술 활동을 자성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현재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학사 및 철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학술 활동의 주체인 연구자 집단의 연구 동향과 이들이 학술 활동 과정 중에 표출하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을 밝히는 일은 해당 학문의 역사와 철학 및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 전문 학회지 발행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고,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과 어떠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형성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집중 조명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과 그곳에 인용된 이 분야의 외국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동향을 밝히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그 연구 동향을 밝힌다.

(2)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포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과의 커뮤니케이션 과

정을 밝힌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광복이후부터 현재(2003년)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논문에 대한 계량 정보학적 연구로써 조사 대상 기간을 1970년부터 1990년으로 한정하였다.

조사 대상 문헌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을 선도해온 대표적인 학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간행, 배포한 학회지를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학회지는 해당 학문분야를 대표하는 문헌이기 때문에 논문의 질과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에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및 이곳에 인용된 문헌의 주제 및 서지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0(Microsoft Excel 2000)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과 서지학 영역을 제외한 298편의 연구 논문과 이곳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5,701편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 학문분야 연구 동향 및 인용 문헌의 주제 분류를 위한 기준과 분석 도구는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주제 분류의 기본적인 목적은 문헌정보학 영역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지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제 분류 기준의 설정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학문분야 해외 데이터베이스 중 LISA(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ISTA(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bstraction), LLIS(Library Literature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류 범위와 듀이십진분류표(DDC) 21판의 주제명을 비교, 종합하여 본 연구의 주제 분류 도구로 사용하였다(표 1

참조).

## 2.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연구 동향 및 인용 문헌 분석

### 2.1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연구 동향

#### 2.1.1 주제별 분석

조사 대상 기간동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298편의 영역별 분포는 정보학(27.9%), 문헌정보학 일반(19.8%), 도서관 봉사(16.1%), 자료 조직(14.1%), 도서관 운용(12.8%), 도서관 체계(8.7%), 건축·설비 및 기록관리학(0.3%)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의 5편중 1편 이상은 그 영역이 정보학이고, 5편중 1편 정도는 그 영역이 문헌정보학 일반 혹은 도서관 봉사이고, 10편중 1편 이상은 그 영역이 자료 조직 혹은 도서관 운용이다.

발표된 연구 논문의 영역별 비중을 그래프로 작성한 것이 <그림 1>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의 주제별 분포는 교육·연구(9.7%), 정보 검색(9.4%), 도서관 자동화(8.1%), 편목법(6.4%), 장서 개발(4.7%), 정보학 일반(4.0%) 등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10편중 1편 정도는 그 주제가 교육·연구, 정보 검색, 도서관 자동화이고, 20편중 1편 이상은 그 주제가 편목법이고, 20편중 1편 정도는 장서 개발 혹은 정보학 일반이고 나머지 주제 비중은 20편중 1편미만이다.

표 1. 문헌정보학 영역 주제 분류 도구

영역	주 제	영역	주 제	영역	주 제	영역	주 제
문헌정보학 일반	이론·철학	도서관 체계	도서관 정책	도서관 봉사	참고봉사	정보학	일반·이론
	도서관과 사회	건축·설비	관종별 도서관		이용 지도·교육		계량정보학
	각국의 사정		건축·계획		이용자 연구		정보축적, 데이터베이스
	협회·회의		설비·장치		독서 지도·교육		정보 검색
	교육·연구	도서관 운영	비품·공급		도서관 홍보		도서관 자동화
	법률·기준		도서관 경영	일반, 서지통정	컴퓨터 네트워크		
	역사		인사 관리	편목법	전문가 시스템		
도서관 체계	일반		조직 관리	분류법	인터넷		
	정부 재정 지원	재무 관리	도서 기호	일반·이론			
	도서관 위원회	장서 개발	색인·초록	각종 서지(목록)			
	실태 조사·통계	장서 관리	어휘 통제	서지 분석			
	도서관 발전책	문헌의 유형	주제명·목록·색인	출판			
	도서관 사정	도서관 봉사 일반	시소러스	기록관리학			
도서관 협력	도서관 봉사	열람·대출	메타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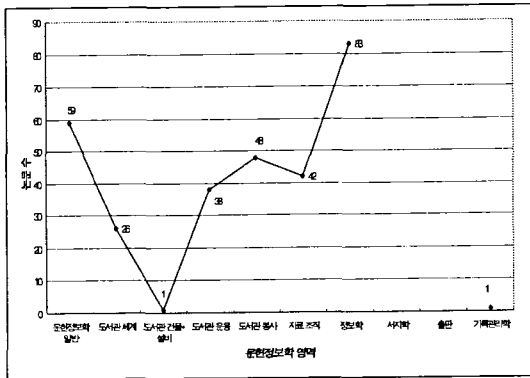


그림 1. 발표된 연구 논문의 영역별 비중

이를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때 각 영역의 비중은 모두 백분율로 각각 환산되었다.

① 정보학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가운데 정보학 영역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정보 검색(33.7%), 도서관 자동화(28.9%), 정보학 일반·이론(14.5%), 계량정보학(9.6%), 전문가 시스템(8.4%), 정보 축적 데이터베이스(3.6%), 인터넷(1.2%)의 순위이다. 즉, 정보학의 비중을 좌우한 주제는 정보 검색, 도서관 자동화, 정보학 일반·이론이다.

② 문헌정보학 일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가운데 문헌정보학 일반 영역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교육·연구(49.2%), 법률·기준(15.3%), 이론·철학과 도서관과 사회가 각각 11.9%, 역사(8.5%), 협회·회의(3.4%)의 순위이다. 즉, 문헌정보학 일반의 비중을 좌우한 주제는 교육·연구, 법률·기준이다.

③ 도서관 봉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가운데 도서관 봉사 영역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참고 봉사(22.9%), 봉사 일반 혹은 이용자 연구가 각각 20.8%, 이용 지도·교육(12.5%), 열람·대출(10.4%), 독서 지도·교육(8.3%), 도서관 홍보(4.2%)의 순위이다. 즉, 도서관 봉사의 비중을 좌우한 주제는 참고 봉사, 봉사 일반, 이용자 연구, 이용 지도·교육이다.

④ 자료 조직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가운데 자료 조직 영역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편목법(45.2%), 분류법(16.7%), 도서 기호(11.9%), 색인·초록(9.5%), 자료 조직 일반 혹은 주제명·목록·색인이 각각 7.1%, 시소러스(2.4%)의 순위이다. 즉, 자료 조직의 비중을 좌우한 주제는 편목법, 분류법, 도서 기호이다.

⑤ 도서관 운영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가운데 도서관 운용 영역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장서 개발(36.8%), 조직 관리(21.1%), 도서관 경영 혹은 문헌의 유형이 각각 13.2%, 인사 관리(10.5%), 장서 관리(5.3%)의 순위이다. 즉, 도서관 운용의 비중을 좌우하는 주제는 장서 개발, 조직 관리, 도서관 경영, 문헌의 유형이다.

⑥ 도서관 체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가운데 도서관 체계 영역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도서관 협력(34.6%), 관중별 도서관(26.9%), 도서관 발전책 혹은 도서관 사정이 각각 15.4%, 도서관 체계 일반 혹은 실태 조사·통계가 각각 3.9%의 순위이다. 즉, 도서관 체계의 비중을 좌우하는 주제는 도서관 협력, 관중별 도서관이다.

⑦ 건축·설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가운데 건축·설비 영역에 관한 주제는 비품·공급 1편뿐이다.

⑧ 기록관리학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기록관리학 영역에 관한 논문은 1편뿐이다.

2.1.2 간행 시기별 분석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298편에 대한 1년 간격의 간행 시기별 분포를 그래프로 작성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4-1990년 기간 중에 66.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1984년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발표한 연구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은 전국에 걸쳐 대학들에 문헌정보학과의 설치에 따른 연구자들이 증가함에 따른 학회지의 간행 빈도가 연간에서 반년간으로 증가됨에 따라 자연 증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2.1.3 소결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의 영역 및 간행 시기별 분포는 1984-1990년

기간 중에 간행된 정보학 문헌 72편(24.2%), 1982-1990년 기간 중에 간행된 문헌정보학 일반 문헌 40편(13.4%), 1981-1990년 기간 중에 간행된 도서관 봉사 문헌 36편(12.1%), 1983-1990년 기간 중에 간행된 자료 조직 문헌 27편(9.1%), 1984-1990년 기간 중에 간행된 도서관 운용 문헌 23편(7.7%) 등의 순위이며, 이 5개 영역을 다룬 문헌은 전체의 66.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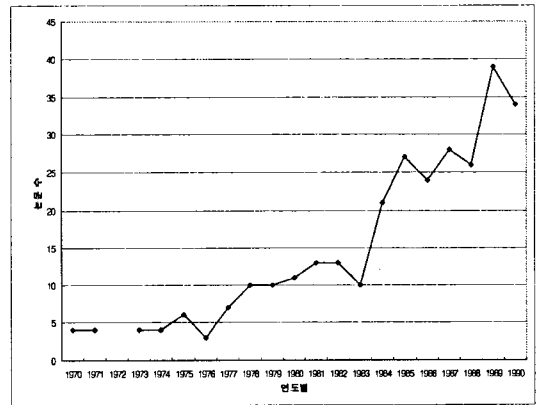


그림 2. 발표된 연구 논문의 간행 연도별 분포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1981-1990년 기간 중에 5개 영역(정보학, 문헌정보학 일반, 도서관 봉사, 자료 조직, 도서관 운용)을 집중 연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학의 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정보 검색과 도서관 자동화 또는 정보학 일반·이론이며, 이 주제를 다룬 53편(정보학 문헌의 63.9%)의 간행 시기는 1984-1990년에 집중되었다.

문헌정보학 일반의 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교육·연구와 법률·기준이며, 이 주제를 다룬 35편(문헌정보학 일반 문헌의 59.3%)의 간행 시기는 1979-1990년에 집중되었다.

도서관 봉사의 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참고 봉사, 이용자 연구, 봉사 일반, 이용 지도·교육이며, 이 주제를 다룬 28편(도서관 봉사 문헌의 58.3%)의 간행 시기는 1981-1990년에 집중되었다.

자료 조직의 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편목법,

분류법, 도서 기호이며, 이 주제를 다룬 20편(자료 조직 문헌의 47.6%)의 간행 시기는 1980-1990년에 집중되었다.

도서관 운용의 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장서 개발, 조직 관리, 도서관 경영, 문헌의 유형이며, 이 주제를 다룬 26편(도서관 운용 문헌의 68.4%)의 간행 시기는 1980-1989년에 집중되었다.

## 2.2 인용된 외국 문헌의 인용 분석

### 2.2.1 인용된 외국 문헌의 주제별 분석

조사 대상 기간에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298편에 인용된 외국 문헌의 영역별 분포는 정보학(28.7%), 자료 조직(18.1%), 문헌정보학 일반(16.0%), 도서관 운용(13.1%), 도서관 봉사(12.9%), 도서관 체계(8.4%), 서지학(1.5%), 출판(0.7%), 건축·설비(0.4%)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의 5편중 1편 이상은 그 영역이 정보학이고, 5편중 1편 정도는 그 영역이 자료 조직 혹은 문헌정보학 일반이고, 10편중 1편 이상은 그 영역이 도서관 운용 혹은 도서관 봉사이다. 다시 말하면 조사 대상 기간 중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외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의 영역별 커뮤니케이션은 5개 영역(정보학, 자료 조직, 문헌정보학 일반, 도서관 운용, 도서관 봉사 등 88.8%)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인용된 외국 문헌의 영역별 비중을 그래프로 작성한 것이 <그림 3>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의 주제별 분포는 정보 검색(11.5%), 편목법(9.4%), 교육·연구(5.4%), 정보학 일반(5.0%), 도서관 자동화(4.9%), 참고 봉사(4.8%), 문헌정보학 이론·철학(4.5%), 관중별 도서관(4.4%), 장서 개발(4.1%) 등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 10편중 1편 이상은 그 주제가 정보 검색이고, 10편중 1편 정

도는 그 주제가 편목법이고, 20편중 1편 이상은 그 주제가 교육·연구 혹은 정보학 일반이고 나머지 주제의 비중은 20편중 1편 미만이다. 다시 말하면 조사 대상 기간 중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외국의 그것과의 주제별 커뮤니케이션은 9개 주제(정보 검색, 편목법, 교육·연구, 정보학 일반·이론, 도서관 자동화, 참고 봉사, 문헌정보학 이론·철학, 관중별 도서관, 장서 개발 등 54.0%)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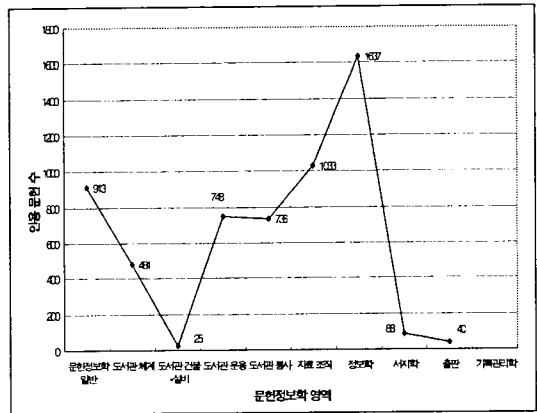


그림 3. 인용된 외국 문헌의 영역별 비중

이를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때 각 영역의 비중은 모두 백분율로 각각 환산되었다.

#### ① 정보학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 가운데 정보학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정보학(40.1%), 정보학 일반·이론(17.3%), 도서관자동화(16.9%), 정보 추적, 데이터베이스(8.9%), 계량정보학(8.4%), 전문가 시스템(6.2%), 컴퓨터 네트워크(1.9%), 인터넷(0.4%)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정보학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주제는 정보 검색, 정보학 일반임을 알 수 있다.

#### ② 자료 조직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 가운데 자료 조직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편목법(52.1%), 분류법(20.2%), 색인·초록(10.2%), 자료 조직 일반, 서지 통정(6.9%), 주제명 목록·색인(3.4%), 시소러스(2.5%), 도서 기호(2.4%)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자료 조직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주제는 편목법과 분류법임을 알 수 있다.

### ③ 문헌정보학 일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 가운데 문헌정보학 일반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교육·연구(34.0%), 이론·철학(27.9%), 법률·기준(16.5%), 도서관과 사회(11.0%), 협회·회의(5.3%), 역사(4.8%), 각국의 사정(0.5%)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일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주제는 교육·연구, 이론·철학, 법률·기준임을 알 수 있다.

### ④ 도서관 운용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 가운데 도서관 운용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장서 개발(31.4%), 도서관 경영(23.0%), 문헌의 유형(14.4%), 인사 관리(13.4%), 조직 관리(10.0%), 장서 관리(5.6%), 재무 관리(2.1%)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도서관 운용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주제는 장서 개발, 도서관 경영, 문헌의 유형, 인사 관리, 조직 관리임을 알 수 있다.

### ⑤ 도서관 봉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 가운데 도서관 봉사를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참고 봉사(37.0%), 봉사 일반(19.4%), 이용자 연구(17.9%), 이용 지도·교육(10.1%), 열람·대출(7.9%), 도서관 홍보(6.3%), 독서 지도·교육(1.5%)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도서관 봉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주제는 참고 봉사, 봉사 일반, 이용자 연구임을 알 수 있다.

### ⑥ 도서관 체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 가운데 도서관 체계를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관종별 도서관(52.0%), 도서관 협력(28.3%), 도서관 정책(5.0%), 도서관 발전책(4.8%), 도서관 사정(4.2%), 실태 조사·통계(3.3%), 도서관 체계 일반(1.9%), 도서관 위원회(0.4%), 정부 재정 지원(0.2%)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도서관 체계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주제는 관종별 도서관, 도서관 협력임을 알 수 있다.

### ⑦ 서지학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 가운데 서지학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각종 서지(목록)(53.4%), 서지학 일반·이론(44.3%), 서지 분석(2.3%)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서지학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주제는 각종 서지(목록), 서지학 일반·이론임을 알 수 있다.

### ⑧ 출판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 가운데 출판물 다룬 문헌(40편)은 전체의 0.7%이다.

### ⑨ 건축·설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 가운데 건축·설비 영역을 구성하는 주제별 분포는 건축·계획(60.0%), 설비·장치(32.0%), 비품·공급(8.0%)의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건축·설비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건축·계획, 비품·공급이다.

## 2.2.2 인용된 외국 문헌의 간행 시기별 분석

조사 대상 기간동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을 3년 간격으로 조사한 간행 시기별 분포는 1979-1981년(15.4%), 1982-1984년(15.2%), 1976-1978년(13.3%), 1970-1972년(10.9%), 1973-1975년(10.7%), 1985-1987년(7.9%), 1967-1969년(7.7%), 1964-1966년(4.1%), 1961-1963년(3.0%), 1988-1990년

(2.5%), 1930년 이전(1.9%), 1955-1957년과 1958-1960년이 각각(1.2%), 1949-1951년(1.1%), 1952-1954년(1.0%), 1943-1945년(0.7%), 1937-1939년(0.4%), 1940-1942년(0.4%), 1946-1948년(0.3%), 1931-1933년(0.2%), 1934-1936년(0.1%)의 순위이며, 1970-1984년 기간에 간행된 외국 문헌을 집중적으로 인용하였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크게 영향을 준 외국 문헌은 1970-1984년 기간에 간행된 문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용된 외국 문헌의 간행 시기별 비중을 그래프로 작성한 것이 <그림 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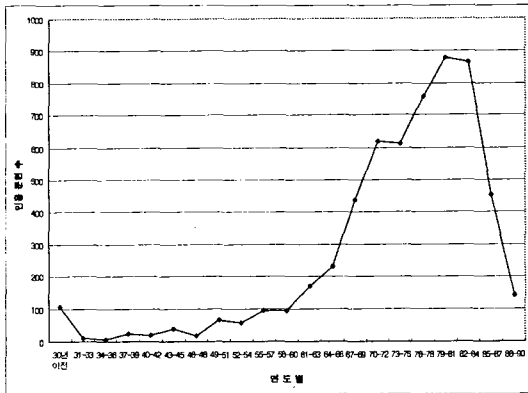


그림 4. 인용된 외국 문헌의 간행 시기별 비중

한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 가운데 1931-1960년 기간 중에 간행된 문헌(428편)은 전체의 7.5%에 불과하다. 즉, 1960년 이전에 간행된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3 소결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포는 1973-1987년 기간 중에 간행된 정보학 문헌 1,160편(20.4%), 1973-1984년 기간 중에 간행된 자료 조직 문헌 530편(9.3%), 1970-1984년 기간 중에 간행된 문헌정보학 일반 문헌 626편(11.0%), 1970-1984년 기간 중에 간행된 도서관 운용 문헌 507편(8.8%), 1970-1984년 기간 중에 간행된 도서관 봉사 문헌 485편(8.5%) 등의 순위이며, 이 5개 영역을 다룬 문헌은 전체의 58.0%이다.

즉, 1970-1987년 기간 중에 간행된 5개 영역의 문헌(정보학, 자료 조직, 문헌정보학 일반, 도서관 운용, 도서관 봉사)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학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준 외국 문헌의 주제는 정보 검색이며, 이 주제를 다룬 401편(정보학 문헌의 61.1%)의 간행 시기는 1976-1987년에 집중되었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정보학에 관한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76-1987년 기간 중에 간행된 정보 검색을 다룬 문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료 조직 연구에 크게 영향을 준 외국 문헌의 주제는 편목법이며, 이 주제를 다룬 문헌 485편(자료 조직 문헌의 65.9%)의 간행 시기는 1973-1984년에 집중되었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자료 조직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73-1984년 기간 중에 간행된 편목법을 다룬 문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 일반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준 외국 문헌의 주제는 교육·연구 235편(문헌정보학 일반 문헌의 25.7%)과 이론·철학 170편(문헌정보학 일반 문헌의 18.6%)이고, 그 간행 시기는 각각 1970-1981년, 1970-1984년에 집중되었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문헌정보학 일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70-1984년에 간행된 교육·연구 및 이론·철학을 다룬 문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운용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준 외국 문헌의 주제는 장서 개발이며, 이 주제를 다룬 174편(도서관 운용 문헌의 23.3%)의 간행 시기는 1967-1984년에 집중되었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도서관 운용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67-1984년에 간행된 장서 개발을 다룬 문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운용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준 외국 문헌의 주제는 장서 개발이며, 이 주제를 다룬 174편(도서관 운용 문헌의 23.3%)의 간행 시기는 1967-1984년에 집중되었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도서관 운용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67-1984년에 간행된 장서 개발을 다룬 문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67-1984년에 간행된 장서 개발을 다룬 문헌임을 알 수 있다.

도서관 봉사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준 외국 문헌의 주제는 참고 봉사이며, 이 주제를 다룬 215편(도서관 봉사 문헌의 29.2%)의 간행 시기는 1970-1987년에 집중되었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도서관 봉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70-1987년에 간행된 참고 봉사를 다룬 문헌임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동향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과 여기에 인용된 외국의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포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1984-1990년 기간 중에 정보학, 문헌정보학 일반, 도서관 봉사, 자료 조직, 도서관 운용 등 5개 영역을 집중 연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의 주제 중에 정보학 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정보 검색과 도서관 자동화이며, 이 주제를 다룬 문헌의 간행 시기는 1985-1990년에 집중되었다.

문헌정보학 일반의 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교육·연구이며, 이 주제를 다룬 문헌의 간행 시기는 1979-1990년에 집중되었다.

도서관 봉사의 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참고 봉사, 이용자 연구, 봉사 일반이며 이 주제를 다룬 문헌의 간행 시기는 1981-1990년에 집중되었다.

자료 조직의 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편목법과 분류법이고, 그 간행 시기는 1983-1990년에 집중되었다.

도서관 운용의 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장서 개발이며, 그 간행 시기는 1981-1989년에 집중

되었다.

(2)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준 외국 문헌은 1970-1987년 기간 중에 간행된 정보학, 자료 조직, 문헌정보학 일반, 도서관 운용, 도서관 봉사 등 5개 영역의 문헌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정보학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76-1987년 기간 중에 간행된 정보 검색을 다룬 문헌이고, 자료 조직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73-1984년 기간 중에 간행된 편목법을 다룬 문헌이고,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문헌정보학 일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70-1984년에 간행된 교육·연구 및 이론·철학을 다룬 문헌이고, 도서관 운용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67-1984년에 간행된 장서 개발을 다룬 문헌이며, 도서관 봉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한 외국 문헌은 1970-1987년에 간행된 참고 봉사를 다룬 문헌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향후 진행 계획은 광복이후부터 현재(2003년)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 및 이곳에 인용된 문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타 학문 분야와의 접목 과정과 인용된 문헌의 반감기 등을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연구의 일부분임을 밝힌다.

#### 참고문헌

- LISA(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DIALOG FILE 61.  
<http://www.ib.hu-berlin.de/~is/LISA-DIALOG.html> (검색일, 2004. 06. 04)
- ISTA(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bstraction) DIALOG FILE 210.
- LLIS(Library Literature and Information Science)  
DIALOG FILE 438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2th Ed., New York: Forest Press, 1996.